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ne 14,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kmbc.org

www.silokm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km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410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There Comes to My Heart

H413 내 평생에 가는 길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C1004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0:5-20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다 Jesus Sends out the Twelve.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244 주님께 드려요 Give All to Go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임시 신도 사무 총회 2026년 6월 21일

- 친교후 예배 장소 이전 안건

야외 예배 2026년 6월 21일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18:1-15

- 1 여호와께서 마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는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15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시편 PSALM 116:1-2, 12-19

-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 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 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 18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 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와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5:1-8

-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5장 1-8 절은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앞선 1-4 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율법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논증한 바울은, 이제 5장에 이르러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확신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Peace)'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종식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적 연합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직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이뤄낸다는 단계적 성장의 원리를 제시하며,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선포는, 성도가 맞이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절대적 안전보장과 확신의 닻이 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1. 믿음으로 얻는 화평과 은혜의 자리 (Peace and Standing in Grace)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주제는 화평과 은혜의 자리로의 진입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과거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들어가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성된 영원하고 견고한 법정적·관계적 화해이며, 성도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의 기초가 됩니다.

2. 환난의 역설과 성령의 소망 (The Paradox of Suffering and Hope)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허무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빛어지는 거룩한 성장의 과정으로 재정의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환난을 도구로 삼아 성도의 내면에 인내를 길러내시고,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정금 같은 '연단된 인격'을 형성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빛어진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확인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3. 확증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The Demonstrated Sovereignty of Divine Love)

이 본문의 신학적 정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성과 대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거나 가치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무력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우리의 어떠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주권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과 환난을 무조건 피해야 할 악이나 실패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안목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삶의 애기치 않은 시련이나 아픔을 만날 때, 이를 하나님의 징계나 부재로 오해하여 낙심하곤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그 환난을 통해 내 삶에 인내와 거룩한 인격을 빛어가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바라보도록 초청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나의 영적 상태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영적 취약성을 보입니다. 기도가 잘 되고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가도, 영적 침체나 삶의 결핍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이미 2 천 년 전 십자가에서 영원히 '확증된(Demonstrated)' 사건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미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아낌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삶의 구체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는 영적 원리가 당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실제로 증명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3.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확증된 사랑'의 교리가 영적 침체나 죄책감에 빠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화평 선포하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하다." 출근길이나 일상 시작 전 로마서 5:1 을 세 번 암송하며 시작하십시오.

화요일: (환난의 재해석)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인 고난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습니다: "이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결국 인내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낼 것이다."

수요일: (성령의 부으심 구하기) 일과 중 가장 지치기 쉬운 정오(낮 12 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2 분간 눈을 감습니다. 로마서 5:5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지금 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목요일: (십자가의 역사적 확증 묵상) 로마서 5:6-8 을 천천히 정독하며 **"기약대로",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완료된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묵상하며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십시오.

금요일: (소망의 기쁨 나누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마음이 채워졌다면, 주변에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나 교우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내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를 삶으로 증거하는 날입니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삶의 어떤 거센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낙심과 시련의 순간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인내를 길러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는 영광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0:5-20

-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